

# 1시간 이상 참선 '생활화'

## 신행연장

### 신행회 서울지회 1백여 보살들

20년간 씬지 돈을 모아 불교계 안팎의 복지시설을 방문하며 불우한 이웃을 도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신행회 서울지회(회장 김명숙) 100여 보살들. 신행회는 81년 참선과 봉사가 깨달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한 영명스님(전남 순천 신행선원장)의 법문에 감동한 불자들이 하나 둘 스님을 찾은 게 계기가 돼 결성됐다. 이 때 서울에 살고 있는 불자들은 서울지회를 따로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신행회 서울지부의 활동은 단순하면서도 진지하다. 우선 회원들은 매일 아침 남편과 자녀들이 집을 나서면 참선에 든다. 개인 사정에 따라 참석하는 시간은 각기 다르지만 1시간 이상은 꼭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회원 중에는 3시간 이상 면벽을 한 채 화두참구를 하는 보살들도 여럿 있다. 이렇게 오전을 참선으로 보내면 오후에는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독송한다. 10여 년 이상 된 회원들은 보현행원품을 달달 외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지라, 집안 정리를 하고 장을 보는 중에도 독송은 계속된다.

참선과 독송으로 닦은 회원들의 심신은 주말이 되면 실천으로 나타난다. 둘째주 일요일에는 경기도의

정부 광명보육원을 찾는다. 보육원의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특식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에 의해 어질러진 보육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일이며 아이들의 웃음 세척하노라면 하루가 후딱 간다. 8년째 이 곳을 방문한 신행회 서울지회 회원들이다. 시설의 부덕살림이며 청소 및 세탁도 구들이 손에 익어 마치 엄마처럼 일을 척척해 낸다. 또한 아이들 개개인의 입맛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 주말마다 봉사활동 경전 독송도 꾸준 공부실천 둘다 열심

돈까스, 잡채, 김밥, 탕수육, 오징어 볶음 등을 먹는 아이들의 점심시간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이밖에도 신행회 서울지부는 서울 독산동 소망의집 장애아들과 안양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 불자들을 매월 한 차례 이상 만나고 있고, 지난해부터 결혼사정의 자녀들의 공부도 돕고 있다.

신행회가 참선과 독송 그리고 봉사, 이 세 가지를 20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



△신행회 서울지회는 안양소년원, 소망의집, 광명보육원을 매월 방문해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사진은 안양소년원 찬불가지도 모습.

까? 이에 대해 신행회 서울지회 김명숙 회장은 "회원 모두 매년 여름 전남 순천 신행선원에서 3박 4일 동안 열리는 '참선 및 독송 수련회'에 동참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매월 두 차례 마련되는 영명스님의 참선 강좌에 참석해, 자신의 공부를 점검 받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수련회나 강좌에는 서울지회를 비롯해 부산, 광주, 해광맹인불자회, 운문사, 봉선사, 동학사 등 10개 지회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회원들이 타 지회와 비교하는 시간도 가져 타산지석을 삼는 계기도 된다는 것이다.

영명스님은 늘 회원들에게 "지혜가 있으면 자비로 나아가고, 자비가 있으면 방편을 찾고, 방편이 있으면

힘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선과 보살행이 함께 할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스님의 철학이자, 신행회 서울지회 회원들의 마음도리이기도 하다. 신행회 서울지부는 15일 회장 김명숙 씨의 집에 모여 송년모임을 갖는다. 이날 결산이나 임원선출 등도 하지만, 후원을 좀더 살갑게 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봉사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부터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이 내 몸과 마음을 두고 업장을 소멸해 가는 수행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는 신행회 서울지회 김명숙 회장은 "이번 논의에서 돈과 행위보다는 마음이 앞서는 봉사를 하자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행회 서울지회=02786-1104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a.com

## 주제가 있는 법문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는 '나눔'에 눈 돌려야 할 때"



지현스님  
봉화 청량사 주지

인간은 본능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 그 본래의 근성(本性)대로 호전적인 면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 지상에서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는데, 고대 중국에서 인간 본성을 두고 성악설(性惡說)과 성선설(性善說)로 나뉘어 논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를, 예수는 사랑을, 마호메트는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한번도 싸우지 않은 쪽은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군을 내세워 저 유명한 백년전쟁을 치렀고, 평화를 주창한 마호메트의 이슬람도 끝없이 싸웠고, 오늘도 미국 등 서방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주창한 예수의 기독교

의 이념으로 빙자하여 감히 저지러 수 있던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전쟁은 피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종교를 빙자하여 저지르는 행위는 특히 금해야 할 불행입니다. 화는 화를 불러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용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렵고 어지러운 이 시절에, 우리 불자들은 다시 한 번 부처님의 자비를 가슴속 깊이 되새겨 보아야겠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적을 스스로 무찔러 자비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한(有限)합니다. 윤회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만고의 법칙을 사람들은 어렵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앞의 이해타산에 억눌려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와 타인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그러한 마음도리에서 찾아야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적극적인 행위인 '나눔'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은 서설(雪)이라고 합니다. 오랜 가을 끝에 내리는 상서로운 첫눈이라는 뜻입니다. 내리는 눈을 맞으며 아이들은 좋아하고 뛰어다닙니다. 순진무구한 웃음을 허공에 날리며 눈과 함께 놀입니다. 세상 모두가 눈 속에 묻히고, 불안하지 않고 포근하기만 합니다. 이 첫눈을 신호로, 오랜 가을이 해갈되고 위축됐던 경제와 불안정한 정치가 풀리고 온 사회가 두루 평안하길 기원해 봅니다.

“맹신은 전쟁의 불씨  
악의 순환 더는 없어야”  
가 어찌 싸움을 원했으며, 평화를 주창한 마호메트의 이슬람이 어찌 그들 교도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도록 했겠습니까. 문제는 맹신입니다. 이슬람 과격파(그것을 원리주의라고 함)는 매우 호전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졌지만 아프간 사태의 중심에서 있던 탈레반 정권은 여자 아이들과 여교사들을 아예 모두 학교에서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TV에서 그 아이들이 밤에 비밀리에 모여 공부하는 장면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옛날 일제 치하에서 우리 여학생들이 밤에 몰래 모여 독립운동 집회의 전단을 가슴에 품고 왜경의 눈길을 피해 골목골목으로 쫓기듯 뛰어다니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시큰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발각되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지스런 맹신의 짓입니까. 맹신은 맹신을 불러 태러를 저지르고 급기야 전쟁의 불씨를 지피는 악(惡)입니다. 물고 물리는 악의 순환, 이런 짓을 어찌 종교

## 생활속의 불교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발견해야 참으로 아는 것이다. 남이 가르쳐 준 것을 듣고, '그게 이렇더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될지는 몰라도 참 지혜는 못 된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은 문자에 얽매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동안 내가 체험한 것만을 설한다 하셨고, '이 법은 와서 보라는 법이요 현실의 법이며 누구 나 증명할 수 있는 법'이라고 설파하셨다. 조사님들도 문자나 말을 희롱하는 제자들을 영부세 중이라 하시며 방, 할로 다스리셨다. 경전과 어록은 체험한 것을 일러주기 위한 방편이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이 교문(敎門)을 세우신 것은 부득이한 조처였지 거

## 빈 멧돌 돌리기

기에 머물라고 한 게 아니었다. 말이나 문자는 체험을 나타내는 도구이지만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그 의미가 갈릴 수는 없다. 언제나 조금씩은, 때로는 아주 크게 그 의미가 어긋난다. 예컨대 잘 익은 과일을 먹은 사람이 제가 맛본 것을 표현하려고 '참 맛있다'고 했다 하자. 그는 맛을 체험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다만 '맛있다는구나' 할 뿐이지 아직은 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직접 먹어볼 때에 그 나름대로의 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자로만 '맛있다'라는 표현에 접한 사람은 어떠한가. 그의 경우라면 '맛있다'는 말이 잘 익은 과일을 먹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지 않는다. 그의 관념

세계엔 '맛있다'는 말이 주는 많은 연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전깃줄을 만진 사람이 '어이쿠'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어이쿠'라는 문자가 언제나 '전깃줄을 만진다'라는 의미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어록도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 따라 제각기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즐겼을 외우고 가로 세로로 꿰고 있는 것과 실제로 맛을 보는 것과는 천지차이가 있다. 단 한 줄의 말씀이라도 직접 체험할 일이다. 빈 멧돌을 열심히 돌리든 얻을 게 무엇이라.

불교문화상품 전문 사이버 몰 마하몰(www.mahamall.co.kr)

# 우리가 바라는 세상 아름다운 사이버 불교 세계

2001년 하반기 결산 전 상품 할인  
기간 : 12월1일~12월31일

## SALE 5%

**기획상품 - 고급 경상 (홍송)**

기존의 경상 가격이 높아 쉽게 구입하지 못한 사찰 및 불자 가정에도 보다 폭 넓은 보급을 목적으로 마하몰에서 기획상품으로 홍송원목의 고급 경상을 저렴한 가격으로 한정된 물량만 공급하고자 합니다.

**전면**

**후면**

무늬목 접착기공이 아닌 고품질의 홍송 원목을 사용하여 가지가 최대한 높았습니다.  
재질 : 고급 홍송 원목 · 조각 : 십장생, 연화  
표면처리 : 원목 상등기름 도장마감  
규격 : 가로120cm × 세로42cm × 높이 38cm  
※ 특별공급가 : 495,000원

**불자반지 · 목걸이**

관(관자)를 둘러싸고 있는 16개의 큐빅은 보석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테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반지(14K / 18K) 정상가 : 110,000원(14K) / 145,000원(18K) 할인가 : 104,500원(14K) / 137,750원(18K)	목걸이(14K / 18K) 정상가 : 155,000원(14K) / 195,000원(18K) 할인가 : 147,250원(14K) / 185,250원(18K)
---	--

**천연염색이불**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염색법에 의한안양이불로서, 기존의 인체에 해로운 화학약품으로 염색한 이불과는 전혀 다른 숲, 담토, 숲등 인체에 유익한 100% 천연 한방 약재로 염색처리한 이불입니다.

종류 : 숲, 황토, 숲  
정상가 : 150,000원

**포대화상**

오래된 소나무(노송)를 이용하여 100% 수직업으로 조각한 작품입니다.

**포대화상(大)**  
규격 : 높이45cm × 넓이30cm  
정상가 : 368,000원  
할인가 : 349,600원

**포대화상(中)**  
규격 : 높이22cm × 넓이13cm  
정상가 : 50,000원  
할인가 : 47,500원

**포대화상(小)** 규격 : 높이13cm × 넓이7cm  
정상가 : 15,000원 / 할인가 : 14,250원

※ 100% 수공예 작업 작품이므로 사정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송기간은 3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장미목 염주세트**

수주(數珠)라고도 하며 예쁠때 손목에 걸거나 손으로 돌리기도 하며 염불이나 절을 하는 빛수 세는데 쓰기도 하는 법구의 하나이다.

재질 : 장미목  
구성 : 염주(10mm) + 단주(25mm)  
정상가 : 15,000원  
할인가 : 14,250원